



● 인성이 전투력이다

<10> 육군27사단 초급간부 행복플러스

지휘관의 관심, 인성교육의 '든든한 기둥'



육군27사단 초급간부 행복플러스에 참여한 간부들이 '별명 맞히기' 게임을 통해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있다. 부대 제공



육군27사단 초급간부 행복플러스에 참여한 간부들이 각자 그린 자화상을 보면서 환하게 웃고 있다. 부대 제공



지난 23일 이기자교회 교육관에서 열린 육군27사단 행·플의 '지휘관 열린 토의'에서 김정수(왼쪽) 사단장이 초급간부들의 질문에 진지하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조언해주고 있다. 부대 제공



초급간부 위한 사단장의 진심 어린 조언

“여러분은 사단장이 지금까지 승승장구했을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눈물 젖은 빵을 먹어 봤지. 군 생활을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고 진급도 누락돼 봤어. 대위에서 소령 진급을 못 했는데 옆친 데 댈친 격으로 부대에서 축구를 하다 크게 다쳤던 시기가 참 힘들었어. 그때 전역하겠다고 가족에게 200번은 얘기했을 거야.”

지난 23일 육군27사단의 '초급간부 행복플러스(행·플)'가 열리고 있는 이기자교회 교육관. 사단 행·플의 마지막 순서인 '지휘관 열린 토의'에서 '군 생활 중 기억에 남는 일'을 묻는 말에 김정수(소장·육사42기) 사단장이 진지하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자 초급간부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동안 꽃길만 걸었을 것 같은 사단장도 이런 고민을 했었다는 고백에 놀라움과 함께 묘한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이리라. 사단장은 이런 조언도 덧붙였다.

“그때 '당신은 군대가 딱'이란 가족의 말 한마디에 처음 군인을 꿈꿨던 중학생 때의 마음을 떠올렸지. 그리고 전역을 할 때 하더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결심한 거야. 지나고 보니 풍파가 멘토였어. 하늘은 선물을 줄 때 결코 공짜로 주지 않는다. 로또 당첨자가 패가망신하는 것처럼 단련이 안 된 사람에게 그냥 선물을 주면 제대로 소화를 못 하거든. 지금 힘들어 죽겠다고 생각한다면 곧 선물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면 된다. 지금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실수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서 모든 교훈이 생기는 것이다.”

휴대전화 금지 등 부대 호출 차단으로 교육 집중력 높여

육군본부가 '인성이 전투력'이라는 모토 아래 장병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사항이 '지휘관의 관심'이다. 인성교육이란 것이 당장 손에 잡히는 성과가 나타나는 교육이 아닌 만큼 지휘관의 관심이 없으면 자칫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교육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사단장과의 열린 토의로 일정을 마무리하는 27사단의 행·플은 지휘관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본 같은 인성교육이라 할 수 있겠다.

27사단의 행·플은 2박3일로 진행된다. 1박 2일이 표준 커리큘럼이지만 초급간부들이 궁금해하는 금융·재정 관련 문제를 설명·상당하는 재정교육과 사고예방교육에, 사단장이 참여하는 '지휘관 열린 토의'를 추가로 편성했다. 초급간부가 사단장급 지휘관과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기회인데 김 사단장은 아예 일정에 행·플 참석을 반영했다. 시간 날 때 어쩌다 들르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 열린 토의를 자신이 해야 할 업무로 본 것이다.



초급간부 2박 3일 일정 마지막 순서 지휘관과 터놓고 대화하는 시간 가져 '사단장님도 나와 같은 고민을?' 동질감 느끼며 마음 여는 계기로

교육 완성도 향상·특별휴가 혜택 참가 인원 30% 늘고 만족도 높아져



참석 간부들이 오로지 행·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도 인상적이다. 교육 중에는 휴대전화를 쓸 수 없다. 소속 부대에서 전화로 호출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이다. 근무에서도 제외다. 게다가 교육 후 2박3일간 '특별휴가'라는 파격적인 혜택도 주고 있다.

육군이 처음 행·플을 개발할 당시 참여했던 이산호(대위·군종65기) 목사는 "사단장님께서 외적인 훈련도 굉장히 중시하시지만, 장병들이 심리적으로 여유롭고 내적인 힘을 키울 때 임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라면서 "행·플에 대한 지원은 초급간부들이 일상의 업무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적 행복을 찾는 데만 집중하라는 지휘관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플을 통해 초급간부들에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이들이 초급간부들에게 관심을 쏟고 있으며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어려움이 닥칠 때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휘관의 관심은 행·플 활성화로 나타났다. 먼저 참가 인원이 30%나 늘어났다. 예하 부대에서 초급간부들의 행·플 참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덕분이다. 재정교육과 사고예방교육은 재정참모와 헌병대장이 직접 나서서 힘을 보태고 있다. 잡념 없이 행·플에만 집중하고 사단장까지 직접 참가하고 특별휴가를 부여할 정도로 관심을 두다 보니 참가자들의 만족도와 교육 완성도도 높아지고 있다.

상승독수리연대 전투지원중대 김재학(21) 하사는 "전입 직후 큰 훈련에 참여하고 중대 개편도 이뤄져 정신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잠시 한숨 돌리며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지휘관 열린 토의 때 처음에는 많이 긴장했는데 사단장님께서 그런 마음을 잘 풀어주신 데다 부사관 역할 정립 활성화에 대한 지휘 철학은 물론 초급간부로서 임무를 잘 수행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주셔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군종참모 김성현(소령·군종63기) 신부는 "많은 지휘관께서 우리 사단장님처럼 행·플에 관심을 두시고 여건을 보장해 주신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육군 전투력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장병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가영 기자 kky71@dema.mil.kr

■ 편집=유현애 기자